

# “보상선수요? 더 좋은 기회 될 것 우승 목표로 새 시즌 준비하겠다”

KIA에 새 등지 트 좌완 김대유

마무리 캠프 끝난 챔스필드 찾아  
구단 유튜브 통해 팬들에게 인사  
팀 이기도록 내 역할 다할 것  
즐거운 경쟁하면서 도약 계기로  
KIA 팬 야구 사랑과 열정 커 기대

‘호랑이 군단’의 일원이 된 좌완 투수 김대유가 새 안방을 찾았다.

포수 박동원의 FA 보상 선수로 KIA에 이적한 김대유가 29일 챔피언스필드를 방문했다. 마무리 캠프가 끝나면서 경기장이 텅 비었지만 “구단 유튜브를 통해 KIA 팬들에게 직접 인사를 하고 싶다”며 경기장을 찾은 것이다.

밝은 표정의 김대유는 ‘기회’로 보상선수로 지명된 소감을 밝혔다.

그는 “야구선수로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람들과의 정, 이런 부분은 나중 문제이고 개인적으로나 야구적으로는 한 단계 더 올라갈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관심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느꼈다. 그 전에 팀을 많이 옮겼는데 이런 관심을 받지 않았던 것 같다. 이번에는 워낙 연락이 많이 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대유에게 KIA는 5번째 팀이다. 넥센(현 키움)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해 SK(현 SSG)-KT를 거쳐 2020년부터 LG에서 뛰었다. 그리고 지난해와 올 시즌 2점대 평균자책점으로 37홀드를 찍으면서 LG에서 새로운 야구 인생을 열었다. 그만큼 LG는 김대유에게 특별한 팀이다. 김대유는 LG에서 받은 사랑과 KIA 팬들의 기대감을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하겠다는 각오다.

김대유는 “(LG에서 기회를 얻고 사랑을 많이 받았다) 감사한 부분이다.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선수로서는 관심을 많이 받으면 좋은 것이다”라며 “KIA 팬들이 야구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엄청나시니까 기대가 된다”고 언급했다.

또 “KIA 팬들의 관심을 봤다. 멀리서 인사할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최대한 빨리 직접 구단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정성스러워 생각했다”고 광주 방문 이유를 밝혔다.

KIA 팬들뿐만 아니라 구단의 기대감도 크다. ‘뒀심싸움’, ‘좌완 불펜’이라는 숙제를 가진 KIA는 만장일치로 김대유를 선택했다.



김대유는 “그런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선수로서 최고의 가치가 아닐까 한다. KIA 투수진이 좋다고 생각한다. 팀이 이기는 데 중요한 순간에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다. 주어진 자리에서 잘하려고 왔다. ‘팀 이기는 데 지기겠다’가 내 각오다”며 “어느 팀이나 들어가 보면 경쟁을 해야 한다. 경쟁이 생긴다는 게 좋은 것이다. 경쟁하면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기대감’으로 새 시작을 보는 그는 빨리 새 동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다.

김대유는 “팀 많이 옮겨봤는데 적응하는 건 원래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선수들과 잘 지내고 싶다. 승부는 많이 해봤는데 따로 연락하는 KIA 선수는 없다. 빨리 보고 싶는데 비시즌인 게 어렵다. 어린 선수들은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내가 다가가기도 하면서 잘 섞이면 좋겠다. 위에 대투수님(양현종) 계시니까 도움도 많이 받아야겠다.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다(웃음)”며 “KIA 모든 투수가 공군이다. 잘하는 선수들은 왜 잘하는지 공군이다. 오랫동안 내가 야구를 못했다가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공군증이 시작이었던 것 같다. 왜 잘하는지, 뭐를 잘하는지를 공군하면서 많이 바뀌었다. 서로 경쟁이기는 한데 나도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KIA 타자들과의 만남도 기대하고 있다.

김대유는 “타자들이랑도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한다. 나를 상대해봤기 때문에 내가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투수 입장에서만 보면 한계가 있다. 타자들 이야기 들으면 다르다.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고, 잘못된 것도 파악할 수 있다”며 “LG는 좌타자가 많아서 다 자연스럽게 만날 것 같기는 하다. 재미있을 것 같다”고 적으로 만나게 될 옛 동료들과의 만남도 이야기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둔 그는 ‘우승’을 목표로 새 시즌을 준비할 생각이다.

김대유는 “광주로 이사하는 게 힘들겠다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왜 그게 힘든 건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야구하면서, 옮겨 다니면서 당연히 집을 구하고 그라야 하는 것이다. 장점이 많은 도시고 좋을 것 같다. 챔피언스필드 마운드도 잘 맞았다. 컨디션 안 좋은 날에도 올라가면 좋은 경우도 있었다”며 “시즌 준비할 때 여유 있게 준비를 했다. 처음 많이 던졌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했는데 시즌 초에 고전하기도 했다. 나한테 맞는 시점이 언제인지 알 것 같아서 원래 방식대로 할 생각이다. 투구폼 세밀하게 하고 타자들이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 코치님들과 이야기 많이 하겠다. 우승 한번 해보고 싶다. KIA가 우승 가장 많이 한 팀이니가 때가 오지 않았나 싶다. 꾸준히 잘하면서 우승 한번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체육 새로운 도약과 혁신 이끌겠다”

박찬모 전 광주육상연맹 회장, 광주체육회장 출마 선언

“체육인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고, 체육인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박찬모(62·사진) 전 광주시육상연맹 회장이 29일 광주시체육회관에서 광주시체육회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체육의 새로운 도약과 혁신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체육인들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민선 1,2기 체육회는 방향을 잃고 이렇다할 성과없이 위상이 곤두박질했다”며 “민선 3기는 유명무실한 체육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뼈를 깎는 자성과 개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화의 시작은 우리함께’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박 전 회장은 이어 “광주체육은 도덕성, 참신성, 소통 능력을 두루 갖춘 훌륭한 리더를 발굴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면서 “제가 광주체육 중흥을 이끌 준비된 일꾼, 강력한 혁신과 새로운 도약을 실현할 책임자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균형있게 상생하는 광주체육, 체육인의 권익 신장과 광주체육의 위상제고를 통해 위기에 처한 광주체육을 다시 올바르게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회장은 “현재 광주체육은 인프라가 빈약하다면서 세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광주종합실내체육관(스포츠센터) 건립과 광주전, 영산강천 수변공간에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체육단체 전무이사 활동비 연차별 증대, 은퇴선수의 체육지도자 전환 지원 등 복지 정책도 제시했다. 학교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해 체육인재 장학기금 확보, 운동부 창단학교 장기적 지원방안 마련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시민 1인 1종목 확대, 전문체육·생활체육을 아우르는 광



주체육대회 대추전 개최 등 생활체육 공약도 소개했다. 체육행정 선진화 부문에서는 예측가능한 행정을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체육행정, 보조금 집행만하는 소극적 행정 탈피 등 정책을 내세웠다.

그는 최근 진행된 후보군 4차 단일화와 관련, “뜻을 같이하는 후보들에게 다시 한 번 단일화를 제안한다”며 “단일화 방안은 체육계 원로들이 4명의 후보 가운데 적합한 인물을 지목하는 방안이 있다. 단일화가 무산되더라도 체육회장 선거에서 반드시 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회장은 조선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뒤 전남대에서 공학석사·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주)우영기술단건축사사무소 회장을 맡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리디아 고, 여자골프 세계 1위 복귀

2017년 이후 5년 5개월 만에  
역대 최장기간 결려 복귀 기록

리디아 고(뉴질랜드·사진)가 5년 5개월 만에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되찾았다. 리디아 고는 29일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지난주 2위보다 한 계단 오른 1위가 됐다. 리디아 고가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가 된 것은 2017년 6월 이후 이번이 5년 5개월 만이다. 지난주 1위였던 넬리 코다(미국)는 2위로 내려갔다. 랭킹 포인트는 리디아 고가 7.52점, 코다 7.44점이다.

1997년생 리디아 고는 18살이던 2015년 2월에 처음 세계 1위에 올랐고, 그해 6월에 박인비(34)에게 잠시 1위 자리를 내줬다가 2015년 10월 다시 1위에 복귀했다.

리디아 고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줄곧 1위를 놓치지 않았다.

2006년 창설된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5년 5개월 만에 1위에 복귀한 것은 역대 최장기간 기록이다.

중전 기록은 박인비가 2015년 10월 이후 2018년 4월에 다시 1위가 돼 2년 6개월 만에 1위에 복귀한 사례였다.

1위 자리를 되찾은 리디아 고는 역대 최장기간 1위 부문 순위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리디아 고는 지금까지 105주간 1위를 지켜 이 부문 5위인데 3위 쟁야니(대만)의 109주, 4위 박인비의 106주를 추월할 기회를 잡았다.

이 부문 1위는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의 158주, 2위는 고진영(27)의 152주다. /연합뉴스



## 개막 10연패에...김형실 페퍼스 감독 사퇴

이경수 코치가 감독대행

광주 AI페퍼스 김형실(70·사진) 감독이 팀 부진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AI페퍼스 구단은 29일 “김형실 감독이 올 시즌 부진한 성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구단에 전했다. 구단은 심사숙고 끝에 김 감독의 뜻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에서 차기 감독 후임을 찾겠다. 그 때까지는 이경수 코치가 감독대행으로 팀을 이끈다”고 설명했다.

구단 관계자는 “김 감독과 인연의 끈을 이어가고 팀에 기여할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구단 고문 등 여러 역할을 놓고 김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을 이끌고 ‘4강 신화’를 썼던 김 감독은 지난해 창단한 페퍼스 초대감독으로 부임했다.

첫 시즌인 지난 시즌은 3승 28패로 최하위에 그쳤지만, 탄탄한 조지력을 바탕으로 강팀을 여러 차례 괴롭히며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올시즌 개막 후 10연패에 빠졌다.

김형실 감독은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사실 1라운드 끝나고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왔다. 팀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湧되 결심했다”면서 “단단한 팀을 만들어놓고 떠나야하는데 감독직을 내려놓게 돼 팬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압구정
- 2관 데시벨
- 3관 올빼미, 원피스 필름 레드
- 4관 압구정
- 5관 올빼미
- 6관 올빼미
- 9관 압구정, 탄생
- 7관 씨네커롬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동감
- 8관 씨네커롬 압구정,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본즈 앤 올, 스트레이지 월드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오페라단 2022 송년음악회  
금난새와 함께하는 <월드 클래식 오페라 시리즈 II>

일시 : 2022. 12. 3.(토) 17:00  
2022. 12. 4.(일) 17:00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1  
문의 : 062-412-2507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37회 정기공연 영아오페라 시리즈 I  
**피노키오**

일시 : 2022. 12. 2.(금) 19:30  
2022. 12. 3.(토) 15:00 / 19:00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613-8246